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대한노인회장, 32개국 유학생에 장학금 지급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으로 국제사회에 보답해야”

우정교육문화재단 통해 외국인 유학생 102명에 장학금 4억 8백만 원 전달... 누적 112억 원

최근 유엔한국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대한노인회장이 26일 국내 대학에서 수확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이 회장은 26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1학기 외국인 장학금 수여식'에서 32개국 외국인 유학생 102명에게 장학금 약 4억 8백만 원을 전달했다. 현재까지 45개국 2,847명의 유학생들이 누적 112억 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았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2008년 교육장학 사업을 목표로 이중근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했다. 2010년부터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매년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대상 국가와 수혜 학생을 대폭 늘리고 장학금 액수도 1인당 연간 8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이날 대표 장학생으로 선발된 아제르바이잔 출신 레일라 마시리(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는 “한국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 배경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 오게 되었으며, 우정교육문화재단의 장학 지원은 학문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장님께서 유엔한국협회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하시어 국제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오늘 받는 이 장학금은 더 큰 책임과 사명을 일깨워 주는 격려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연구자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중근 이사장은 “우정교육문화재단의 장학금이 한국에서 꿈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유학생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과거 국제사회 많은 나라들의 도움으로 존재하고 유지된 국가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의 도움으로 수립됐고, 6·25전쟁 때는 유엔군의 참전으로 국가가 보존, 유지될 수 있



우정교육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

었다. 동방예지국으로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준 유엔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제안하고 있다.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은 여러분들의 고국과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2일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이사장은 대한민국과 유엔이 역사적으로 각별한 인연임을 강조하며,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안해 오고 있다. 이 이사장은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위해 지난해 9월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에 동의하는 40만 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힘쓰고 있다.

유엔데이(국제연합일)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국제연합(UN)이 창설·발족된 1945년 10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부터 1975년까지 공휴일로 기념했으나 북한이 유엔산하의 여러 기구에 공식적으로 가입하면서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1976년 공휴일에서 폐지했다.

이 이사장은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외에도 저출

생·고령화 등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1억 원, 대한노인회장으로서 노인 연령 단계별 상향, 재가 입중제도 활성화 등을 제안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사장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전국 130여 곳이 넘는 초·중·고·대학 등에 기숙사를 기증해 오고 있으며, 우정학원을 설립해 전라남도 화순 능주중·고, 서울 덕원여중·고, 덕원예고 등 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창신대학교를 인수해 신입생 전원에 1년 간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우정(宇庭)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25개국에 학교 600 곳, 교육용 칠판 60만여 개, 디지털피아노 7만여 개를 기부하는 등 국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1조 22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기부하며 모범적인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승원 기자



광산구의회, 제1회 기후위기대응 그림그리기 대회 성료

총 32점 접수... 미래 세대의 '기후위기 대응' 상상력 빛나

광산구의회(의장 김명수)가 미래 세대의 기후위기 대응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한 '제1회 광산구의회 기후위기대응 그림 그리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광산구의회는 26일 '제1회 광산구의회 기후위기대응 그림그리기 대회' 상장 수여식을 열고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 속 실천 방안을 스스로 고민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처음 마련했다.

작품 공모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진행됐으며, 개인 12점과 단체 20점 등 총 32점이 접수됐다. 참가 학생들은 탄소중립,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대중교통 이용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그림에 담아내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참신한 상상력을 선보였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 표현력,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그 결과 총 13명이 수상에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는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1명 ▲입선 10명이다. 김명수 의장은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기후위기와 실천 방안은 어른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미래 세대의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등 우수작 3점은 2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광산구의회 2층 갤러리에 전시되며, 광산구의회는 이를 통해 미래 세대가 전하는 기후위기 대응 메시지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한빛원자력본부, 생명나눔 헌혈 운동 시행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김성민)는 2월 25일(수)에서 26일(목) 이틀에 걸쳐 '생명나눔 헌혈 운동'을 진행하였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연계한 이번 헌혈 행사는 동절기 혈액 수급난 해소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하였다. 한빛본부 임직원들이 기증한 혈액과 헌혈증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소중히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한빛원자력본부는 17년 동안 꾸준히 단체 헌혈과 헌혈증 기부를 통해 생명 존중 실천에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해 나갈 예정이다.

영광/이현식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농어촌공 나주, 청렴과 안전은 「나」부터 「주」체적으로

2026년 건설현장 안전결의대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지사장 류화열)는 26일 나주지사 대회의실에서 공사 감독 및 현장대리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의식 확대 및 청렴의식 제고를 도모하는 “2026년 건설현장 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건설현장의 참여 주체 간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의지를 다지기 위한 청렴이행과서 교환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한 결의문 낭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산업재해 사례 공유 및 당부사항 전파 등으로 건설현장의 청렴하고 안전한 문화

를 뿌리내리기 위한 의식 제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재해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청취하고, 건설현장 참여 주체 간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협의회(안전회의)를 시행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류화열 나주지사장은 “건설 참여자 모두가 안전의 주체로서 안전 수칙을 몸소 실천하고 청렴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부영그룹, 신임 회장에 이용섭 前 건설교통부 장관 선임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장관, 국회의원, 국제청장, 광주시장 역임

부영그룹은 1일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장관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신임 회장은 제14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관세청장과 국제청장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 등 고位的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가는 곳마다 혁신 성과를 창출한 '혁신가'이다. 또한 제18대 및 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입법 역량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민선 7기 광주광역시장을 역임하며 '광주



형 일자리' 성공 등 현장에서 탁월한 행정력과 정책 추진력을 증명해 온 바 있다. 이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부영그룹이 그동안 쌓아 온 건설한 경영의 토대 위에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고 더욱 신뢰받는 글로벌 국민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Self

참숯구이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회 순환어과 및 미생물 배양 정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